서효인의 '소설처럼'

어느 소설가의 날카로운 예감 -링 마 '단절'

팬데믹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 출간된 소설에서 중국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그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단절되고, 단절 안에서 수많은 이가 목숨을 잃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 소설의 작가가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을 가졌거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는 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2018년에 장편소설 '단절'(Severance)을 발표한 중국계 미국 작가 링 마(Ling Ma)가 그렇다.

소설의 주인공 캔디스는 작가 링 마의 자전적 요소가 더러 있는 인물이다.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하여, 예술을 전공하고 출판 편집자로 일한 바 있는 작가로서 그려낸 캔디스라는 인물은 더없이 현실감 있다. 캔디스는 어릴 적 부모를 따라 중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했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뉴욕의 출판 제작 업체에서 성실하게 일하나 스스로가 원하는 부서의 일은 아니다. 애인은 상의도 없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그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여유 없는 뉴욕에서의 일상은 점점 더 황폐해지는 것만 같고, 그럴수록 캔디스는 일에 몰두한다. 주 업무는 중국 등지에 있는 하청 업체에 인쇄와 제본을 맡겨 성경책을 생산하는 것이다.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을 쓰는 현대 사회의 바쁜 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들려온다. 그녀의 고향이자 아직도 친척 몇이 살고 있는 고향에서 그것은 시작되었다고 한다. '선 열병'이라 불리는 새로운 전염병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전파력이 빠르다. 증상은 현실의 바이러스와 판이한데, 신경 정신에 관련이 되어 있는 듯하다. 이 열병에 걸리면 평소 가장 자주하던 행동을 죽을 때까지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사무원은 키보드를 두드리길 반복한다. 택시 기사는 핸들을 잡고 도심을 배회한다. 마치 좀비처럼 정신은 사라지고 육체만 남아, 어쩌면 그가 가장 지루해 했을 내재화된 루틴을 거듭한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죽을 때까지, 몸에 난 상처에 벌레가 꼬일 때까지, 이윽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병은 삽시간에 세계를 삼킨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닿은 후, 뉴욕을 폐허로 만든다. 추운 지방의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 세계는 멈추었다. 뉴욕이 멈추었다는 말은 세계가 멈추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일지도 모른다. 캔디스는 끝까지 뉴욕에 남는다. 위기의 상황에서 회사를 끝까지 지켜주면 거액의 퇴직금을 주겠다는 제안 때문이었지만, 멸망한 세계에서 화폐는 쓸모 없는 숫자에 불과했다. 모든 게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인류는 우왕좌왕한다. 아니 대다수 인류가 규칙적인 행동을 반복한다. 캔디스는 운이 좋게도 항체를 가진 듯하다. 전염병이 삼켜 버린 뉴욕의 기록을 담는다. 그러던 중,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 전염되지 않은 무리를 만나 합류한다.

소설은 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의 삶을 은유하는 풍자소설처럼 읽히지만 앞서 밝혔듯이 이 소설은 팬데믹 이전에 창작되었다. 소설가에게 어떤 통찰력이 있었던 것일까. 혹은 소설가의 삶과 소설가를 둘러싼 세계가 그의 통찰력을 논리적으로 유도했을지도 모른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로소 눈앞에 나타난 지구의 여러 문제가 그것이다. 구조화된 차별, 신자유주의의 폐해, 기후 위기와 가짜뉴스 등등.

캔디스가 비감염자 무리와 길을 떠나고, 쇼핑몰이었던 건물에 임시로 머물며 생기는 갈등과 상처는, 인간의 본질을 묻고 있다. 선 열병에 걸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했던 일들을 반복하며, 그들의 삶을 강제했던 문명의 명령을 정신이 없는 몸으로 충실히 따른다. 감염을 회피한 이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종교에 비합리적으로 빠져들고, 권력 관계를 형성하여 타인을 억압한다. 둘 다 어디선가 많이 본 풍경이다. 인류라는 이름의 거대한 공동체가 날마다 형성하는 장면의 모음이라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시인〉

의료칼럼

의식주와 피부 건강

조 명 래
동신대 한의학과 교수

평소 일상에서의 많은 생활 습관들이 피부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 알아 두면 유익한 생활 습관과 피부 건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衣)·식(食)·주(住) 그리고 수면(睡眠)은 우리의 피부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먼저 의(衣). 자연에 순응하여 옷을 입어라. 옛말에 '고기 반찬이 나물만 못하고 비단옷이 삼베옷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마음의 편안함을 함께 이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도 나물과 삼베옷이 더 좋다는 뜻이다. 옷은 가볍고 얇으며 활동하기 편한 것을 입어야 하는데, 이는 콧구멍을 막아 버리면 숨을 쉴 수 없듯이, 우리의 피부도 느슨한 옷 속에서 충분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옷을 입는 원리는 자연의 이치에 맞추어야 하며, 두껍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옷을 피하고 가볍고 얇은 옷을 입음으로써 항상 피부의 숨구멍을 틔워 주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식(食).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옛 의서(醫書)에 "곡기(穀氣)가 원기(元氣)를 이기면 그 사람이 살찌나 오래 살지 못하고 원기가 곡기를 이기면 그 사람이 여위기는 하나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처럼 음식은 적당한 때 적당히 먹고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몸, 아름다운 피부를 지니게 하는 비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우리의 몸은 소우주(小宇宙)이기 때문에 봄에는 봄철에 나는 따뜻한 기운의 음식을, 여름에는 여름철에 나는 뜨거운 기운의 음식을, 가을에는 가을철에 나는 서늘한 기운의 음식을, 겨울에는 겨울철에 나는 차가운 기운의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둘째, 더울 때는 더운 음식을 먹고 추울 때는 서늘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예를 들어 뜨거운 여름에는 속이 허하기 때문에 삼계탕 등의 보양식으로 우리 몸을 보신한다. 이러한 이열치열(以熱治熱)의 법칙, 곧 열은 열로써 다스린다는 법칙 뒤에는 우리의 몸은 그대로 우주 만물의 이치와 같아서 뜨거운 여름이면 서늘하게 식는 몸속을 덥혀 주어야 한다는 원리가 숨어 있다.

주(住)와 관련해서는 자연의 기운을 받으며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대인들이 수많은 질환에 잘 걸리는 것은 집을 비롯한 건물, 도로 등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위적인 환경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하나의 열 덩어리로서 피부를 통해 호흡을 하고 분출하기 때문에, 두껍고 공기가 통하지 않은 옷으로 중무장을 하면 피부의 호흡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 역시 하나의 거대한 열 덩어리라 할 수 있으며,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순환하고 호흡을 해야만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땅 표면을 모두 시멘트로 막아 버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먹고 자며 거처하는 집이야말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마음 먹은 대로 선택하기에도 어렵지만 가능하면 시멘트의 숲에서 벗어난 곳에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면(睡眠). 최고의 보약은 잠이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라는 옛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잠은 중요한 것으로 하루 동안 움직이고 신경 쓰느라 쌓인 심신의 피로를 풀어 주는 것이 잠이다. 따라서 잠은 모든 휴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성장 단계에 따른 가장 바람직한 수면 시간은 6세 미만 유아가 15~20시간, 6세에서 15세 미만이 12~15시간, 15세에서 30세 미만이 10~12시간, 30세에서 40세 미만이 8시간이며, 그 뒤로는 차차 시간이 줄어들어 60세 이후에는 4시간만 자도 충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바쁜 현대인의 생활환경 속에서는 위에서 말한 수면 시간을 따르기란 힘든 일이지만 적어도 하루에 7~8시간 정도는 자 주는 것이 좋다.

이처럼 의식주와 수면은 피부 미용은 물론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 고

파란 나라와 빨간 나라 사이에서

임 명 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다당제 연합정치로 가기 위한 '정치 개혁안'을 발표한다. 이 개혁안에는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통해 권력 구조의 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는 선거용이 아니라 지난 정치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라고 말했다. 철저한 반성. 그렇다. 적대적 공존을 지리멸렬하게 지속해 온 양당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치가 더 복잡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의 문을 열겠다는 의지였다. 얼마 후 이재명 후보는 "제3·4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들려는 건 선거에서 도움받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이재명이 평생 가진 꿈이었다"고 밝히며 정치 개혁안에 힘을 싣는다. 모두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벌어진 일이다.

이제 대선은 끝났고 현재 지방선거가 진행 중이다. 정치 개혁안을 발표한 지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보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 개혁안은 흔적 없이 증발해 버렸다. 맞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위성 정당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주장해온 개혁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배신의 정치를 이번에도 반복한 것이다. 물론 모든 개혁은 강한 반대에 직면하기 마련이고 긴 호흡의 설득과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국민이 모를까? 단지 상대 진영의 반대와 시간 부족이 원인이라면 이토록 실망이 크진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는 점이다.

지방선거 기간 벌어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공천 과정은 그들이 왜 정치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청년 경쟁 선거구 지정 이후 일어난 일은 상상을 넘어선다. 이미 경선 초기부터 선거인단의 표 하나 가격이 300만 원에 달한다는 폭로가 흘러나왔다. 투표 도중에는 여론조사 업체가 불법적으로 선거인단을 추가 모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재경선이 결정되었지만, 재경선 세부 일정이 발표되기도 전에 특정 후보 측이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홍보물을 유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결국 청년 특구에 출마했던 한 후보자는 불공정과 불법이 난무하는 경선을 수용할 수 없다며 스스로 사퇴해 버렸다. 최근에는 경선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15명이 불공정, 불법, 불투명한 경선이었다며 경선 관리 담당자를 집단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끝난 더불어민주당 광주 경선 결과는 어떤가? 주목할 것은 무투표 당선자의 규모이다. 무투표 당선은 해당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가 유일하기에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당선된 경우를 말한다. 광주의 이번 무투표 당선자는 시의원만 해도 총 11명. 2018년 3명, 2014년 1명이었던 무투표 당선자가 이번 지방선거에는 무려 11명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했다. 전체 광주시의원의 절반 가까이 되는 무투표 당선자의 규모는 대구 다음으로 많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지만 그 규모가 심각하다. 광주의 일당 독점 구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모두가 1995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제대로 견제받거나 교체된 적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 지배 체제가 만든 결과이다.

경선이 곧 당선인 조건에서는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권력 장악이 모든 정치 행위의 목적이 된다. 출마자는 특정인을 앞세운 계파 싸움과 편 나누기, 줄 세우기에 사활을 건다. 무엇보다 일당 독점 지배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법, 낡은 관행을 깨는 새로운 선택, 공약으로 경쟁하는 대안 정치 세력의 성장과 같은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조차 소멸시킨다는 점이다. 사실상 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의 깊은 그늘로 인해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능력까지도 상실해 버린 듯하다. 그 반작용일까? 이제 또 다른 독점 정당인 국민의힘의 광주시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 아니면 국민의힘의 빨간색을 양자택일하며 오고 가는 정치가 남긴 폐해는 결국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社 說

윤 "오월 정신은 헌법 정신"…조속한 후속 조치를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5·18 행사라는 점에서 개최 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각료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고 KTX 특별 열차를 타고 기념식장인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기념식장에서도 윤 대통령의 파격은 계속됐다. 보수 정권에서 늘 논란이 됐던 대통령 불참과 '임을 위한 행진곡' 배제, 부실한 경과 보고는 반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 5·18 기념식장도 매년 찾겠다고 다짐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5·18 유공자들과 5·18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으로 입장한 보수 정권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대통령의 기념사가 시작되자 광주시민들은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에 귀를 기울였다. 향후 5년간 현 정부의 5·18에 대한 시각과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이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기념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비록 기대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여야가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5·18 가해자를 '신군부 반란 세력'으로 처음 규정할 만큼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 자세라면 남은 5·18 과제들도 충실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식 선거 운동 개시, 정책으로 공정 경쟁해야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광주·전남 지역 431개 선거구에 출마한 826명의 출마자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후보자들은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 및 대담, 선거 공보물 발송,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를 통해 자신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다만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선거전 개막에 맞춰 여야 정당들은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저마다 승리를 다짐하며 세몰이에 나섰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기호는 소속 정당의 국회 의석 수 순서대로 부여된다. 정권이 교체돼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고,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었지만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이 기호 1번, 국민의힘은 2번, 정의당은 3번을 받게 된다. 또한 유권자들은 1인 7표를 행사하게 된다. 시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과 22일 만에 치러진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정론'을 내걸고 반드시 승리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민주당은 '견제론'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 패배의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가 아니라 지역 살림을 책임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우리 동네 참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여야 한다. 후보자들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지역을 살찌울 참신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며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유권자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권정생과 오월 광주

5월 17일은 '강아지똥' 권정생 작가의 15주기였다. 그의 대표작 '몽실 언니' 삽화를 그렸던 판화가 이철수 작가는 추도식에 다녀온 후 그를 기억하는 작품 한 점을 SNS에 올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권 선생을 생각했다는 그는 "힘 없는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세상은 여전하다"며 "선생의 선한 눈망울에 그렁그렁하던 눈물도 기억한다"고 썼다.

글과 함께 실린 단발머리 몽실 언니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 그 '그렁그렁한' 눈물을 나도 곁에서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제 기사를 쓰며 몇 차례나 읽은, 그의 편지가 떠올라서다.

평생 아픈 몸으로 살았던 권 작가는 여덟 평 흙집에서 살며 아이들을 위한 글을 썼고, 자신의 인세는 어린이들에게 되돌려 주는 게 마땅하다는 유언과 함께 10억 원을 기부했다. 전 세계 어린이가 행복하길 소원했던 그였기에 5·18이 일어나고 8년이 지난 어느 날, 신문에서 '아빠 영정 사진을 든 다섯 살 아이' 사진을 보았을 때 가슴이 무너지고,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을 터다.

그는 사진의 주인공 '광주의 조천호 군에게' 긴 편지를 써내려 갔다. "넌달래꽃을 꺾어 너를 달래지 못한 바보 같은 동무"가 "아버지의 영정을 보듬고 앉은 너의 착한 눈을 보며 가슴 안이 따갑도록 억울했고, 늦었지만 넌날래꽃 한 다발 꺾어 가슴에 안겨 준다"며 미안함을 전했다.

광주에 아름답고도 슬픈 그림책 한 권이 '선물처럼' 당도했다. 고정순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봄꽃: 광주의 조천호 군에게'(길벗어린이)다. 책에는 그림책의 출발이 된 권 작가의 육필 편지 '전문'도 실렸다. 책 속 아이는 얼른 쑥쑥 자라 아빠를 업어 주고 싶고, 아빠가 좋아하는 꽃을 제일 먼저 찾아 주고 싶어 한다.

편지는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어른 조천호에게 전해졌고, "아이들에게 나를 대신해 그날의 이야기를 해 주는 책을 만들어 달라"는 그의 말과 함께 책이 완성됐다.

그림책 뒷면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 "미안해, 어른들이 바보 같아서 미안해…." 어쩌면 권 작가가 '천호 군'에게 보낸 편지는 모든 어른들에게 보내는 편지일지도 모른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